

도, 산업재해 감축 대책 수립·추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합동 캠페인 추진 중대재해 예방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고자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캠페인을 펼치고 산재 감축

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실천추진단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

광판 및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안내단말기 등에 안전 메시지를 송출하고, 각종 고지서 및 생활홍보지 등에 안전 메시지를 삽입하는 등 안전이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안(安)머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실천추진단은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부 전주지청·익산지청·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사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시행됨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조업·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활동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재예방 수칙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산재사망 및 중대재해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강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참여 등을 추진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사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시 강사 및 자료 제공,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중소기업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에서부터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식품안전의 날' 맞아 주간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펼쳐

14개 시군과 함께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식중독 예방의식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7~21일 식품안전의 날 주간을 맞아 14개 시·군과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도는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요령이 적힌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일반 음식점 영업담당자에게 배부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식품안전의 날'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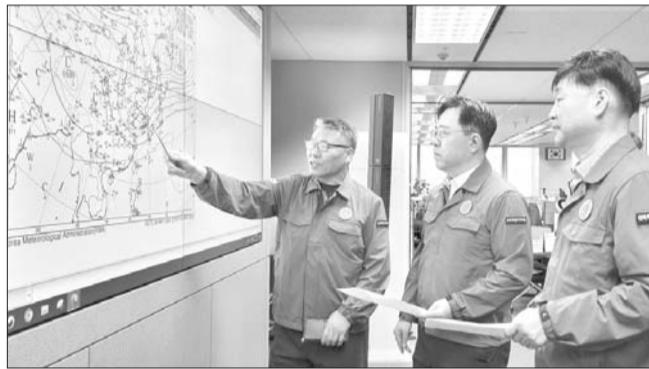
주요 홍보내용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갈·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이다.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식중독예방의식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섭취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캠페인을 펼치고 산재 감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자연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강수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구슬땀

김중훈 경제부지사, 산업부에 신성장 동력사업 예산 반영 설득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도정 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각 중앙 부처에 반영시켜 예산 총괄 부처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일 숨겨진 땀보를 이어가고 있다.

각 중앙부처에서 작성하는 내년 국가예산요구서를 이달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에 따라 전북자치도정은 남은 기간동안 도지사과 행정·경제부지사 등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릴레이 활동을 통해 필요예산을 중앙부처 예산요구서에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김관영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장·차관을 만나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22일

경제부지사, 이달 1일 행정부지사 주재 국가예산 확보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정점별 대응전략을 펴고 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를 찾아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사업 및 교육분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1차관을 만난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산업을 비롯해 탄소소재 기술개발, 바이오기업 육성·집적화 등 전략산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요청한 주요 국가예산 사

업은 △중대형 전기 상용차의 배터리 성능 향상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사업' △상용차의 자율주행 안전성 및 운송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한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 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소재 선박 제조지원을 위한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에너지 소재의 개발을 위한 '초격차 에너지소재 전극용 초고성능 탄소소재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사업' △탄소제품의 규격화된 표준 마련을 위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달출력선 기반 구축사업' △바이오기업의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보스틴 랩센트럴형 실증·제조 오픈랩

(센트럴랩) 구축 및 운영사업' 등이

다. 김중훈 부지사는 이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만나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대학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 선정'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한 '전북하이테크고와 한국치즈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도와 중앙부처의 협력을 통해 마련한 예산요구서가 기재부에 제출돼야 정부안 편성단계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며 "지휘부를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정 발전에 앞장서 중앙부처 예산요구서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부지사 재난상황 긴급점검

"인명피해 예방 철저" 주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일 이어지는 강수에 도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자연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연휴기간 이후 내린 강수 현황과 기상전망을 보고 받고 이번주 잦은 비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공사현장에 대한 긴급점검,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위험기상 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다"며 "지휘부를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정 발전에 앞장서 중앙부처 예산요구서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간 계곡, 하천변 등지에서 위

험수위가 관측될 시에는 즉시 야영객과 행락객들에게 예경보시설을 활용

해 신속히 위험을 알리고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전북지역에는 평균 63.5mm의 비가 내렸으며, 군산이 80.2mm로 최고 강수량을 보인 가운데 전주 62mm, 익산 78.3mm, 남원 49.5mm, 완주 79.7mm, 장수 72.3mm, 순창 69.2mm, 부안 72.3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뱀사골 113.5mm, 강진 110mm, 북촌 104mm, 번암 101mm, 할라 98mm 등 많은 비가 내렸으나 이번 내린 비로 인해 접수된 피해사항은 없었다. 최 부지사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대책기간을 맞아 기상특보가 발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에 대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